

캔버스에 그려진 예술가의 초심

인간의 복잡다단한 감정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 중 하나는 예술이다. 특히 캔버스라는 정해진 틀에서 완성되는 그림에는 정제된 감정이 응축되어 담긴다. 그렇기에 그림 감상은 가장 순도 높은 초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된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장들의 초기작이 기다리는 전시회로 안내한다. 글 샘터 편집부

...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봄이 오다: 정림리에서 전농동까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3월 2일까지, 033-480-7228



재능 있는 신예 미술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던 '조선미술 전람회(선전)'가 성황이던 시절이 있었다. 평범한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그려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는 박수근도 선전이 발굴한 화가다.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한 박수근은 18세인 1932년 <봄이 오다>라는 작품으로 입선했다. 작고 60주기를 맞아 열리는 전시 <봄이 오다: 정림리에서 전

농동까지>에서는 첫 입선작인 <봄이 오다>를 비롯해 <봄>(농가의 여인) 등 여러 선전 수상작들을 마주할 수 있다. '박수근' 하면 돌처럼 거칠고 울퉁불퉁한 질감의 그림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법은 1950년대 이후 보이는 경향으로 1930년대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선전 입선작들은 아직 기교나 기법이 무르익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작가의 작품세계만큼은 온전히 느껴진다. 눈 쌓인 기와집 처마 아래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낙(봄이 오다), 아기를 등에 업고 절구를 찧는 여인(농가의 여인) 등 '서민의 화가' 박수근이 이웃을 바라보던 애정 어린 시선은 초기작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 어머니의 뜻으로 걷기 시작한 길

<운보 김기창>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3월 22일까지, 041-551-5100

근대 화단의 거목 운보(雲浦) 김기창이 남긴 작품 수는 무려 1만여 점을 넘는다. 작고하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운보의 집요함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됐다. 여덟 살에 후천성 청각 장애인인 된 운보의 미술적 재능을 일찍이 발견한 어머니는 그가 열일곱이던 해 많은 후학을 양성한 화가 이당(以堂) 김은호를 주선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림을 배운 지 반년 만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했으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의 천재성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입선작은 아니지만 전통 동양화 기법이 돋보이는 초기작을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에서 만날 수 있다. 그중 소나무 위에 서있는 학의 고고한 자태가 담긴 <송학도(1933)>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무렵 어머니를 심장마비로 잃은 운보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아 그린 작품이기 때문이다.



... 생애 첫 해외여행의 설렘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 서울미술관, 1월 25일까지, 02-395-0100



'꽃과 여성의 화가'로 사랑받는 여류 화가 천경자의 작고 10주기 기획 전에서는 작가 특유의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선이 돋보이는 캔버스들 틈에서 색다른 화풍이 눈에 띈다. <서(西)사모아 아피아시(市) 호텔에서 서(1969. 8. 9.)>다. 머리에 꽃 한 송이를 꽂고 빙긋 웃으며 앉아있는 그림 속 여인은 마흔여섯에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나 남태평양 서사모아의 호텔에서 여행 첫날을 보내고 있는 작가 자신이다. 고유의 장식적인 그림체에서 벗어난 즉흥적이고 소탈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작가는 왜 밑그림 형태로 이 작품을 그렸을까. 처음으로 신세계를 접한 설렘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화폭에 옮겨놓고 싶었기 때문은 아닐까. 100년에 걸쳐 한국 전통회화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받는 거장, 천경자. 그 순간만큼은 창작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들뜬 기분을 표현하는 즐거움에만 사로잡혔을 작가의 경쾌한 손놀림이 그려진다.